

한 조사보고에서 유럽무선전화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90년대 중반에 20억~30억 ECU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수요확대가 단말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텔레포인트(Telepoint) 무선전화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EDCT의 보급이 무선방식의 구내디지털교환기(PABX)시장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금년 봄부터 텔레포인트 무선전화의 실험을 시작하였다. 이는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의 허가로 전화기제조업체인 그루즈社가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계국이 건설된다. 텔레포인트는 전파도달 범위가 중계국 주위 300m로 한정되어 있으나, 전화기 무게가 150g으로 매우 가볍고, 가격도 3,000프랑 정도로 종래의 자동차전화에 비해 저렴하다.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텔레포인트 시스템을 개발한 영국의 오비티社와 제휴한 마트라 코뮤니케이션스社, 페란티와 제휴관계에 있는 Alcatel, 국선용 전화기의 최대기업인 그루즈社등이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90년의 텔레포인트단말 보급대수는 영국 400만대, 프랑스 100만대로 예상되고, 서유럽전체의 보급은 2,000년까지 5,000만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프랑스의 자동차전화보급은 현재 10만대에 이르고 있다. 텔레콤의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주파수가 충분치 않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만2천대가 한계이나 가입자는 계속 늘어, 금년말에는 15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TI 89 EU 3322 ▣

EC, 유럽형 HDTV 실용화에 통일행동확인 선언

유럽공동체(EC)는 4월 27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었던 통신장관 이사회에서 HDTV의 실용화에서 가맹국이 통일된 행동을 취할 것을 확인한 선언을 채택했다. 즉, 1992년을 본격적인 실용화의 시점으로 하여 유럽이 개발한 HDTV의 규격을 국제적인 규격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과 외교의 양면에서 유럽의 힘을 결집하게 되는 것이다.

HDTV는 일본, 유럽에 이어 미국도 독자적인 기술의 개발에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여 금후 상업화를 향하여 규격통일등에서 국가간의 각축전이 활발해질 전망이

다.

EC는 유럽의 HDTV 전략으로 5가지의 행동목표를 설정했다. 그 내용은 ① HD TV의 상업서비스를 향한 유럽산업계의 지원 ② HDTV의 유럽규격의 국제규격화 ③ 세계각국에의 유럽규격채용의 권고 ④ 92년초 실용화 ⑤ HDTV를 위한 영화, TV 프로그램의 진흥 등이다.

유럽은 현재,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프랑스 톰슨사등의 전기메이커가 중심으로 되어 유럽첨단기술개발계획(EUREKA)의 안에서 HDTV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7월에는 실용화를 향해 국민공동으로 신회사의 설립도 준비 중이다. 통신장관 이사회는 이러한 산업면에서의 일본과의 경쟁에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면에서도 유럽각국이 협조하여 HDTV의 실용화를 향한 전략을 취할 것을 확인했다.

EK

RA89EU3003

EC, 가맹국에 단일의 라디오 주파수 사용 요구

유럽위원회는 EC가맹국들에게 국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위해 단일의 라디오 주파수를 조속히 도입하기를 촉구하였다. 즉 모든 EC가맹국이 1992년 1월 자로 European Radio Messaging System(ERMES)의 도입에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원하고 있다.

CEPT에서 논의된 현재의 규정하에서는, 12개의 EC가맹국들의 ERMES의 도입이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중 기술적인 문제로서는, 몇몇 EC가맹국이 현재 466MHZ의 중개 통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모든 EC가맹국이 169.4, 169.88MHZ의 주파수로 ERMES 시스템을 3년내에 실현하도록 요구하였다. EK

TL89EU5304